

# 전주~김천 동서화합철도 대선공약사업 반영해야

### 두세훈 도의원 "내년에 사전타당성 조사 추진 노선 선정토록 영·호남 정치권 총력 기울여야"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더불어민주당)이 전주~김천간 철도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사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반영된 가운데 "내년에 반드시 사전타당성조사 추진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영·호남 정치권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24개 추가검토 사업 중 미래적으로 전주~김천 철도사업에 대해 "사전타당성조사 등을 통해 타당성이 확보되는 대안노선이 있는지를 추가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노선이 있는 경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국토부 고시를 통해 전주~김천 철도사업도 본 사업과 동일하게 사



목을 철저히 분석해 국토부 용역 시행 시 유리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두세훈 의원은 이를 위해 먼저 "전주~김천 간 철도는 궁극적으로 새만금부터 부산에 이르는 동서화합철도이다"며 "나이가 영호남 간 물류·경제·문화·관광 교류를 통해 동서간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균형발전철도라는 것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북도와 경북도의 긴밀한 협치를 통해 폭넓은 문화·경제적 교류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두 의원은 "특히 겨울철 거창~무주~진안 간 고속도로의 위협성(블랙아이스)을 고려해서라도 전주~김천 간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내년 대선공약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유호상 기자

전타당성조사를 받게 돼 사업 추진 가능성이 열린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두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두 의원은 "먼저 전북도와 경북도 영·호남 정치권이 지금부터 예산당국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2022년 본예산에 5억원 가량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의원은 "내년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주~김천 철도사업에 대한 경제성·환경성·지역균형발전 분석 등의 사전타당성조사 항



해상풍력 일괄 설치선(1500) 진수식... 세계 최초 전북도가 군산항 6부두(GCT)에서 우범기 정무부지사, 정승일 한국전력공사장, 김원준 군산시장, 박상진 한국기계연구원장, 김규선 티에지중공업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해상풍력 일괄 설치선(MMB) 진수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건조된 해상풍력 일괄 설치선은 석션버킷 구조의 해상풍력발전기를 운송하는 전용선이다.

## “가짜 수산업자 사건, 그들만의 부패 완판”

### 유력인에 금품 살포 100억원대 오징어 투자 시기 민주 "검찰·국힘·조선일보 카르텔로 비화" 맹공 "장모 구속예 유체이탈 화법" 윤석열 가족 비리 의혹 부각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유력인에게 금품을 살포하며 100억원대 오징어 투자 시기를 벌인 가짜 수산업자와 관련,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나설 때가 아니라 자당 전·현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금품 로비 의혹부터 해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항 가짜 수산업자 사건은 검찰·조선일보·국민의힘의 카르텔로 비화되고 있다"며 "조선 미디어를 중심으로 보수 정치세력과 정치검찰이 모두 등장하는 그들만의 진짜 부패 완판을 보게 될 것 같다"며 맹공을 가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씨의 시기 행각 끝에 누가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김무성 전 의원의 주효 의원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김씨의 선물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재·홍준표 의원도 김씨와 접촉한 바 있다.

이어 "상황이 다급해지자 국민의힘은 또 다시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더 무리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김씨가 2017년 12월 문재인정권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문제삼은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겨냥했다.

이어 "당시 김씨는 현재 재판 중인 116억원 특검법 위반이 아니라 1억 5000만원 일반 사기죄로 구속된 거라 사면 기준에 부합한다"며 "의혹갈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태도는 국민의힘의 조급함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부패와 비리 의혹이 너무 많아서 부동산 전수조사가 두려웠을 거라는 게 이해가 된다"며 국민 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조사가 늦어진 것을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다가갈 수 없는 무지개를 쫓아가는 당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상은 '부패완판단' '비리의힘'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백해련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 비리 의혹을 정조준했다. 백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이 장모 구속 사건에 대해 계속 공정과 상식을 언급하며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있다"며 장모의 요양급여 부정 수급 관련 의혹을 부각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2012년 3월 결혼했고, 9월 장모가 의료법인 설립에 필요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법인 이름은 장모와 동업자의 이름에서 한글자씩 따서 '승은 의료재단'이라고 지었다"며 "자위가 장모의 이름을 딴 의료법인 설립 사실을 몰랐냐"고 따졌다.

이어 "2014년 7월1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가 있었고 7월 21일 장모는 의료재단 이사장에서 정식으로 사임했다"며 "책임면제 각서는 법조인인 윤 전 총장이 낸 아이디어가 아닌가"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나 수사지휘 검사에게 연락을 취한 적은 없냐"고 물었다.

백 최고위원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한 것"이라며 "국민의 검증대에 선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 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뉴스

## “전북의 효자 작목 천마, 생산량 감소 두드러져”

### 황의탁 도의원, 천마 산업 기반 구축 정책간담회 개최 기술개발 등 필요성 제기



전북도의회 황의탁 의원이 7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천마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도의회 황의탁(더불어민주당, 무주군) 의원이 7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천마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천마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과 천마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행정·유통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천마(天麻)는 전북지역 특화 작목으로, 지난 2019년 기준 전국 수확량의 약 65%를 차지할 정도로 효자 작목이었으나, 최근 계속된 무성번식으로 인한 퇴화현상 발생 기술험향에 따른 연차간 수량성 변동 심화 등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민실 도 농업기술원 약용자원연구소장은 이러한 실정과 관련해 "천마 사업의 안정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천마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 천마 품종 육성, 천마 자매 보급

센터 구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종철 무주군 기술연구과장은 "최근 지속적인 무성번식 등으로 인해 천마 생산량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별형 재배사 신축 등 육성자 재배시설 지원사업과 육성자 종자갱신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전북대 신용용 교수의 '천마의 기능성 인정을 위한 산천마 생산 기지화 등 중·단기 과제', (주)에코비즈 유찬주 대표의 천

마와 기능성 결합제품 개발 등 유통 및 홍보방안 등 다양한 관점의 개선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황의탁 의원은 "천마는 심혈관 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까다로운 재배 방식과 생산량 감소로 인해 일선 농가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오늘 관계 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난국을 헤쳐갈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도의회,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최소화 앞장

### 농산경위, 오늘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 공사 현장 방문 행자위, 12일 무주 삼유천 찾아 개선복구 상황 확인 등 문건위, 13일 임실 섬진강댐 지사 등 찾아 현장 점검 나서

전북도의회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수해 피해 복구 및 상습 침수지역 등을 방문해 현지 상황을 점검하며, 선제 대응에 나선다.

도의회는 지난 6일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학교 시설 공사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8일에는 농산경계위원회가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 공사 현장인 정읍 유정지구와 화호지구 배수 개선 사업 현장을 긴급 방문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는 오는 12일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피해를 봤던 무주 삼유천을 찾아 기능복구와 개선복구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이어, 문화관광안전위원회는 오는 13일 임실 섬진강댐 지사와 장수 산서

봉괴위험 급경사지, 장수 변암 동화저수지 등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발생 지역과 임변이나 토사 붕괴 지역을 방문, 현장 확인에 나선다.

아울러, 환경복지위원회는 7일 회기 중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우려 지역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의회 송지용 의장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도내 6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그 피해가 심각했다"면서 "올해 장마철도 불과 며칠 만에 평균 100mm 이상의 비가 내려 상가와 건물, 농경지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피해 최소화 및 빠른 수해 복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현지 의정활동을 지속해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이낙연 "4기 민주정부 염원 담긴 후원금... 용기백배 할 것"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는 7일 "후원 계좌를 연 이래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격려를 주고 계신다"며 "한 분 한 분께 뒤리고 이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후원 감사인사를 전하는 동영상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따님의 이름으로 생애 첫 후원을 하신 부모님, 벌써 다섯 번째 후원을 하신 분, 커피 값을 아껴서 하루 한 번씩 후원을 하시는 분"이라며 "한 분 한 분의 절절한 마음이 제가 잘 안다"고 했다. 이어 "성공적인 제 4기 민주정부를 꼭 수립해달라는 여러분의 염원이 담긴 그 후원 제가 여저 모르겠냐"라며 "잘 하겠다 용기백배 하겠다. 여러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이 전 대표 캠프는 지난 2일 보도자료 통해 "계좌 개설 만 이틀 만에 2만3000여명으로부터 11억4000여만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였다"며 "10만 원 이하 소액후원자는 전체의 98.7%에 달했다"고 밝혔다. /뉴스

## 민주-전북도, 오늘 예산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전북도가 예산 정책협의회를 8일 익산에서 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박원진 정책위의장, 김영호 비서실장, 이윤민 대변인, 맹성규 예결위원회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전주시 병)과 전북의 현역 국회의원,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 지역 현안과 정부 예산 반영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익산시에 위치한 수소연료전지 제조 기업 두산퓨얼셀(주)을 방문해 전북도 전라선업인 수소산업

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송영길 당 대표와 김성주 도당 위원장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쏟아진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익산 중앙시장과 매일시장 수해 복구현장에 방문, 피해 현황과 복구 대책을 청취할 계획이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도와 함께 모여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유호상 기자

## 이용호 의원 '농업수입보장 보험 분사업화법' 대표발의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6일, 농업수입보장보험을 분사업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농업수입보장보험 분사업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농업수입보장보험 등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농산물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도 피해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수입보장보험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콩, 팥, 완두, 마늘, 고구마, 양배추, 감자(가을재배) 품목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15~40%를 지원하는 형태의 시범사업을 6년째 시행 중이다.

이 의원은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작물재해 피해와 가격하락 위험을 동시에 보장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농가 경영안정에 효과적인 보험이다"면서 "농가에서는 농업수입보장보험 확대를 늘 요구하지만, 정부는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개선안도 내놓지 못한 채 벌써 6년째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의원은 "정부가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높은 손해율과 막대한 보험예산 확보로 인해 상품운영이 어렵다면 오히려 시범사업을 폐지하는게 솔직하다"고 했다. /유호상 기자



## 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실용성 제고

### 민주 윤준병 의원, 폐기물시설축진법 개정 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은 7일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실용성 및 입지 수용성 제고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축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실시계획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

고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지에 일정 기간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분양을 완료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도록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부지의 매수를 청구하거나 분양을 요청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지를 분양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분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지의 매수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호상 기자